

스스로를 지키는 길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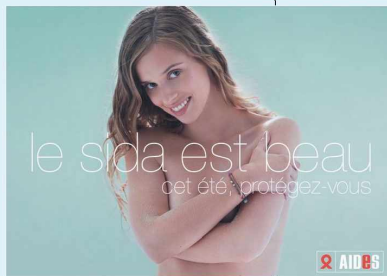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에이즈 예방 광고를 한다면 어떤 표현이 나올까? 몹시 조심조심하다가 결국 아무도 보지 않고 지나가버리지 않을까? 외국의 경우 어땠게 접근하여 풀어갔는지 살펴보면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보일 것이다. 예술의 나라 프랑스의 사례를 보면 에이즈 광고도 예술처럼 만든 장인정신을 느낄 수 있다.

류 양웅 · 김진영 에디터/제작본부장

성에 대한 자유와 책임 보여줘

프랑스 사람들은 유난히 여름휴가를 백식지근하게 즐긴다고 한다. 여름 휴가철이면 파리 시내가 병명 밀 정도라고 한다. 몇 년 전부터는 휴가를 못 가는 파리 시민들을 위해 파리스가 세느 강변에 보래사장까지 만들어 쉼터 인기를 끌고 있었다.

누구나 여름 휴가하면 휴가지에서 뭔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은근히 기대를 하게 된다. 특히 열기왕성한 젊은 청년들은 오죽하겠는가. 이런 그들의 심리를 파고드는 에이즈 예방광고가 있다. 프랑스의 에이즈 예방 기구인 'AIDES'의 광고이다.



▲ 광고 1, 2

각각 남녀로 된 두 편(광고 1, 2)

인데 그냥 보기엔 평범하기 그지없다. 너무나도 매력적인 젊은 남녀의 멋진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림인 것이다. 그러나 적어놓은 글은 선풍적이다. '에이즈는 아름답다.' 결국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은 언제나 아름답다는 이야기로 다분히 위협적인 메시지인 것이다. 이어지는 글은 '이번 여름, 너 스스로를 지켜라' 로 그들의 미모와 아름다움에 속아 실수하지 말라는 의미일 것이다.



▲ 광고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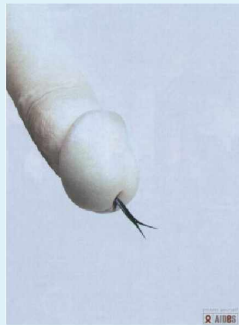
수위 높은 표현에서 더 강력한 경고가

이어지는 광고는 수위가 더 높아진다. 역시 두 편(광고 3, 4)이 짝을 이루는 광고로 각각 남녀의 섹스를 보여주고 있다. 침대 위에서 한창 섹스에 열중하고 있는 남자의 발가벗은 모습이 보인다. 그런데 섹스의 상대

는 바로 독을 쏘고 있는 전갈이 아닌지. '콘돔 없이 섹스를 한다는 건 에이즈와 함께 사는 것'이라고 말한다.

다른 한 편(광고 5)은 소파에 앉아 있는 여자도 더 유린한 분위기를 풍긴다. 이 여자의 섹스 상대는 독거미. 역시 콘돔 없이 섹스를 하는 것의 위험성을 예로 들었던 분위기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의 두 편(광고 5, 6)은 완전히 노출적인 표현으로 보는 사람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노린 것이라고 하겠다. 역시 남녀 두 편(광고 5, 6)의 방법은 같은데 이에 성기를 직접 보여주는 다소 과감한 표현이라고 하겠다. 남자의 성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광고에서는 성기 끝에 독사의 혀를 달아놓음으로써 보는 사람들의 정가심을 자극하는 것이다. 여자편은 여성의 음모를 시체를 넣는 판 모양으로 만들어 역시 에이즈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이다.



▲ 광고 5, 6

이제 마지막 한 편(광고 7)을 감상하자. 가운데 누워있는 여자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남자들이 엉켜있는 모습이다. 문란한 성 행위를 암시하는 표현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이 유린한 상황은 전체의 그림으로 보면 해골의 형태를 하고 있다. 문란한 성행위는 에이즈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이다.

오늘 본 광고들은 자연스러운 인플 사진에서 직접적인 성기 노출까지 표현의 방법들이 다양하다. 과연 어떤 수준의 표현이 가장 설득적일 것이냐가 문제일 텐데 이는 당신에게는 어떤 광고가 가장 공감해 옵니까 라는 질문으로 답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 광고 7